이베로아메리카 제9권 2호(2007. 12): 295-314

반 에스빠냐, 반 식민지, 반 서구열강, 반 미국, 반 신자유주의로 이어지는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역사적 인식

송 영 복

<Abstract>

La Izquierda en el proceso de la historia latinoamericana: anti español, anti extranjero y anti EEUU

Todas las sociedades humanas presentan una estratificación social, o mejor dicho una diferenciación tanto social como sociopolítica. La sociedad latinoamericana también esta dividida marcadamente en este sentido. Pero el caso de Latinoamérica es algo más notable por sus historias peculiares. La conquista americana produjó una división racial y esa perdura hasta ahora. El conquistador es blanco, rico y el de poder. En cambio el conquistado es indio, pobre y el que no tiene poder. Esta realidad innegable es el origen de las tendencias políticas que hoy llamamos, por conveniencia, “Izquierda”. En el inicio del siglo XXI encontramos en Latinoamérica una popularidad mayoría de los izquierdistas que viene desde la conquista. Durante los momentos históricos de Latinoamérica los de abajo, los indios sufrían sin dar un cambio significativo. Aunque había momentos de acción pero su resultado no es suficiente para transformar la estructura. Así las izquierdas luchaban contra los españoles, los extranjeros y los norteamericanos. Pero los de otro partido nunca dejaban su poder de control.

	Izquierda		Derecha	
Etapa de Conquista	Indio		Español, Portuqués	
Principio de Colonial	Indio	Criollo anti España, Portugal	Criollo pro España, Portugal	Peninsular
Colonial	Indio	Criollo sin poder	Criollo con poder	Peninsular
Siglo XIX	Indio	Mestizo y Criollo anti Europa	Mestizo y Criollo pro Europa	
Siglo XIX	Indio	Mestizo y Criollo anti EEUU	Mestizo y Criollo pro EEUU	
Siglo XXI	Indio	Mestizo y Criollo anti Neoliberalismo	Mestizo y Criollo pro Neoliberalismo	

[Key Words: Latinoamérica / Izquierda / Indio / Meztizo / Criollo / Colonial]
[주제어: 라틴아메리카 / 좌파 / 원주민 / 혼혈 / 끄리올요 / 식민지]

Ⅰ. 들어가는 글

라틴아메리카 좌파 대통령 집권 현황

년도[1]	국가	좌파 대통령
1959년	쿠바	피델 까스뜨로
2005년	우루과이	따바레 바스께스
2006년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2006년	칠레	미첼 바첼렛
2006년	페루	알란 가르시아
2006년	브라질	룰라 다 실바
2006년	니카라과	다니엘 오르떼가
2006년	에콰도르	라파엘 꼬레아
2007년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2007년	아르헨티나	끄리스띠나 페르난데스
2008년	과테말라	알바로 꼴롬

1) 각 연도는 대통령선거에서의 당선 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권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한다.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외교, 경제적인 화두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좌파라는 말을 하기에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2000년 이후 더욱 가속화 된 좌파 휘몰이가 단순한 유행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좌파정부의 강력한 통합을 외치고 있으며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선두로 아르헨티나의 키르츠네르가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 쿠바, 파라과이가 여기에 가세하고 있고, 우루과이에서까지 100년이 넘는 역사전통에서 최초로 좌파 대통령이 탄생하기에 이른다. 멕시코에서는 좌우의 대립으로 박빙의 승부로 끝난 지난 대선의 결과를 좌파가 승복하지 않고 급기야는 공식, 비공식적인 한나라에서 두 명의 대통령이 탄생할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중미의 선거에서는 니카라과 반미의 대표적인 주자인 오르떼가가 당선됨으로서 남미 좌파에 새로운 힘을 보탰다. 여기에 브라질 룰라의 재집권 성공, 에콰도르의 꼬레아 후보 승리 등이 이어진다. 위에 열거한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록 대통령은 중도, 또는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국민들의 좌파 경향은 넓게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연대를 통한 남미의 새로운 대안 찾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좌파 휘몰이 현상을 직접적인 정치 경제적인 면이 아닌 먼 시각을 가지고 역사적인 인식의 틀 속에서 생각해 보려한다. 즉 어떠한 역사적 맥락이 이러한 좌파를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는 가를 관찰하려고 한다.

한편 이 논문은 미식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500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좌파 근간의 짚어본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언급을 하자면 몇 권의 책으로도 불가능 하다. 여기에 그러한 시각에 대한 논쟁까지 덧붙인다면 더욱더 그 분량이 무한대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자료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하고 큰 틀을 분석하여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 논문은 역사의 큰 틀과 이에 따른 논쟁을 시작하기위한 큰 틀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를 둔다. 그 틀의 구체적인 부분에서의 논의는 큰 틀을 만들어 보고 그 속에서 가능한 것이기에 이 논문은 시각의 제시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오늘날의 중남미가 좌파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시각의 역사해석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최근에 들어 북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의 제시와 이를 통한 역사 해석방식의 변화 그리고 그 논쟁을 하기위한

첫 시범적인 틀 제시를 듬성듬성하지만 전체의 윤곽을 보여주는 역사의 스케치를 해 보겠다는 것이 저자의 의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결론적으로 주장하려는 것은 오늘날의 좌파는 1492년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을 계기로 반 에스빠냐, 반 식민지, 반 서구열강, 반 미국, 반 외세 혹은 반 신자유주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끊임없는 실질, 상징적인 화두는 1492년을 출발점으로 생성된 부정의 불평등한 관계에 있다. 이 관계는 유럽의 침략에 따른 원주민들의 부당함을 극복하자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그 맥락을 이어가서 혼혈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그 전통을 유지한다. 19세기의 반 서구열강과 20세기의 반 미국이라는 흐름은 외부세력이 민중을 이용하려는 것에 대한 반항인 것이다. 오늘날의 반 신자유주의적인 좌파역시 이러한 점에서 외부세력에 반하는 정치적인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라틴아메리카의 좌파는 1492년 이후에 만들어진 반 에스빠냐의 맥락과 연결된다. 인종적인 구성 역시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원주민 출신의 사회운동가인 에보 모랄레스가 외국주도의 송유관사업에 반대하는 민중의 저항을 이끌어내면서 집권을 하게 된다. 원주민 출신 좌파대통령의 당선과 그의 극적인 띠아후아나꼬 유적지에서의 취임식 등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고대문화, 원주민 문화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흥미롭게 음미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는 공공연히 500년 동안의 압제의 사슬을 끊겠다는 말을 한다. 1492년 이후 원주민들이 바라던 최초의 대통령이 탄생하였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건만을 놓고 볼 때도 라틴아메리카에서 고대문화와 그와 연관되어 거론 될 수밖에 없는 원주민 이라는 주제들이 오늘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전반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원주민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가지지 못한 자를 대표하고 현 라틴아메리카 좌파를 상징화시키는 데에 가장 적당한 표상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기본적인 구조, 큰 맥락에서 이해해 보자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시대별로 원주민 혹은 원주민으로 상징되기도 하는 민중 또는 하층민 들이 어떻게 그들을 침탈한 외부세력에 대하여 저항하였는가를 그들의 역사시각으로 이해해 보자. 즉 이 말은 오늘날의 좌파 휘몰이가 보여주는 반

신자유주의, 반 미국의 정서가 500여 년 전의 사건과 그 이후의 역사적인 맥락의 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각 시대별로 에스빠냐의 정복에 대항한 시기 에스빠냐의 식민지에 대항한 시기가 있었다. 이후 19세기는 에스빠냐에 대체된 서구열강의 침탈과 이에 대한 저항이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계보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는 미국에 대한 저항이 주를 이루고 이것이 신자유주의시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적 기업들에 반대하는 좌파정부의 출현으로 이어진다.

좌파휘몰이의 원류는 민중들의 저항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건설과정 혹은 초기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북미지역에서는 과우테목(Cuautemoc)의 항전과 남미에서의 뚜빡아마루I의 저항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독립시기를 전후하여 페루에서 18세기 말에 발생한 뚜빡 아마루II(Túpac Amaru)의 투쟁, 그리고 칠레 남부 지방에서 독립 상태를 유지한 아라우까노(Araucano)의 저항 등이 꽤 규모가 큰 저항이었다. 19세기에도 민중의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지역적인 반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멕시코의 게라 데 까스따(Guerra de Casta)가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는 멕시코 혁명, 에비따와 뻬론정권, 쿠바혁명, 아옌데의 사회주의정권, 니카라과혁명 등이 라틴아메리카가 1492년 이후 심화시켰던 사회의 불평등과 이에 따른 착취의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큰 의미의 틀에서 보면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정신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러한 시도들은 실패를 하고 만다. 실패냐 성공이냐는 목적이 무엇이었나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일이다. 그들의 목적은 불평등의 해소였다.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굶어죽는 민중들에게 밥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오늘날의 현실이 말하고 있다. 불평등의 문제는 꾸준히 심화되었고 오늘날에도 나아진 것이 없다. 국가 부의 대부분을 소수의 상류층이 가지고 있고 국민의 다수가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현실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었으니 이러한 노력들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아주 분명하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실패는 좌절로 끝나지 않는다. 또 다른 저항으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그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민중의 투쟁은 또 다른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압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저항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투쟁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 그들이 상대하려는 대상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중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그리고 세계화라는 것이 각 국가의 무역 장벽을 없애고 자유 경쟁을 원칙으로 한 효율성과 이윤 창출을 유일한 선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역류하기 힘든 세계 전체의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있다. 거역할 수 없는 경제의 유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져 그 누구보다도 앞 다투어 신자유주의적인 대안을 국가의 목표로 삼고 1980년대와 90년대를 통해 매진하였던 중남미 국민들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쓰라린 실패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물론 많은 희생을 통한 경험이다. 그리고 그러한 신자유주의와 미국 중심의 세계화가 오늘날 민중이 극복해야 될 대상이 되었다.

2000년 이전까지는 분배의 문제보다는 성장의 문제를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에 많은 민중이 어쩔 수 없이 동의해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 입이라도 더 많이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누겠는가의 문제에 앞서 먼저 큰 피자덩어리를 만들자는 의견에 동의를 한 것이다. 그러나 피자가 아무리 커져도 결국은 먹는 놈만 더 먹게 되고, 없는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외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생리라는 점을 많은 라틴아메리카의 국민들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소위 신자유주의의 실험이라는 것이다. 결과는 참담했다. 피자 자체도 커질 수 없었다. 커질 만하면 실속은 다 외국으로 나가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국가 기간산업마저도 민영화라는 말로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 상황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는 것을 깨닫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국가 경제 구조는 나아진 것이 없고 외국인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 국가 경쟁력 강화, 수출 산업 육성과 같은 환상은 신기루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피도 눈물도 없는 외국 자본이 방어할 능력이 없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그나마 남아 있던 미약한 산업분야마저도 잠식한 것이다. 긍정적인 효과는 잠시의 반짝임이었고 장기적으로 구조조정, 산업의 기계화 등에 따른 실직, 국내 자본 시장의 약화로 국가 경제의 몰락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들은 민중의 삶을 신자유주의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시켰다. 결국 외국 기업에 의한 국내 산업과 자본

의 잠식은 외세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피자를 크게 할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더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여주었다.

1492년 이후 끊임없이 그들을 수탈했던 외세는 역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죽음을 마다치 않는 세력임을 확인하게 된다. 내부적으로는 분배의 문제가 병행된 국가 번영이어야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다시 설득력을 얻게 된다. 누구와 협력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미국이나 서구 열강보다는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론의 종합판이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생겨난 좌파 정부의 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중남미 국민들의 새로운 저항 방식이요 현실적인 대안의 총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남미 공동체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유럽 공동체처럼 라틴아메리카 공동체를 만든다는 목표 하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남미의 각 국가들이 미국과 맺으려던 자유 무역 협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그들의 의지를 결연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지 않을 수 없다.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200년 전 시몬볼리바르가 만들려던 남미 통합 국가의 이상이 실패할 때의 원인이었던 지역주의, 즉 각 국가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게다가 미국이 자신들의 뒷마당이었던 라틴아메리카의 반항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까?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문제로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한편 특별한 산업이나 기술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과 의문이 앞선다.

이렇듯 문제가 많다 보니 좌파 휘몰이와 남미 연합이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각 해당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또다시 제3세계로서 주변 국가가 아닌 중심 국가로 발전하겠다는 꿈과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국민들의 희망과 근심을 같이 품고 있는 좌파는 역사 속에서도 역시 희망이었으며 이루지 못한 몽상이었다.

Ⅱ. 반 에스빠냐, 반 포루투갈

좌파라는 용어를 “다수의 기득권을 가지지 못하거나 덜 가진자를 위한 집단”이라고 규정한다면 아메리카 대륙 좌파의 기원은 에스빠냐 혹은 포르투갈 세력에 반대하는 움직임에서부터 원류한다고 할 수 있다. 소수의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와서 다수의 원주민들을 지배하였다. 지배의 과정에서 다수의 원주민들은 권력과 부를 상실하였고 정복자들은 그와 반대로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차별이 갈등을 초래하고 그 갈등은 다수를 대변하는 좌파라는 이름을 붙일만한 목소리가 된다.

이러한 차별의 시작은 인종적인 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심각하다. 애당초 원주민들은 인간이 아닌 동물에 불과한 존재였다. 이것을 최소한의 명목상 공식적으로 인간적인 존재로 규정해 준 것은 1533년에 들어서이다.(Zoraida 1991, 14) 두개의 인간 집단의 만남 그리고 한 집단의 완전한 굴종이 갈등의 시발점이 된다.

반 에스빠냐의 저항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다른 양상의 큰 두개의 흐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순수한 원주민들의 저항이 그 하나일 수 있다. 이것은 구분이 명확하다. 에스빠냐라는 외부세력에 대한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은 순수토착세력의 항거이다.

다른 하나는 소위 말하는 끄리올요(Criollo)와 뻬닌술라르(Peninsular)의 갈등이다. 에스빠냐 세력 중에서도 정복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사람들의 후손으로 정복에 따른 대가의 형태로 지방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의 집단과 에스빠냐정부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최초의 정복자들은 자신들의 정복의 대가로 받게 된 넓은 땅에서 정복에 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그리고 그 권력은 에스빠냐 중앙정부로부터의 간섭에 상관없이 독자적인 결정권 등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차츰 정복기에서 식민지 경영의 정상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에스빠냐정부는 중앙 집중적인 통제를 강화해 나아간다. 이에 지방 세력가와의 갈등이 초래된다. 여기에서 반 에스빠냐라는 용어로 끄리올요 세력을 말하기는 힘든 면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큰 맥락에서 보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에스빠냐 정부에 대항한 적은 힘을 가진 지방 정부의 대응이라는 성격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소외된 지방과 권력을

가진 중앙정부와의 갈등도 차별화된 권력의 한 축을 이루어 나간다.(Hamnet 2000, 261-263) 여기에서 집중적인 권력을 가지지 못한 세력이 차츰 성장하여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보수적인 세력을 이루기도 한다. 좌우를 오가며 중도 좌파 혹은 중도 우파의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즉 굳이 좌파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우파와는 대변되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도라는 용어를 붙여 이해를 돕는 데에 이용할 수 있겠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최초의 좌파 형성은 정복전쟁과 에스빠냐의 정복에 대한 민중저항 등의 형태로 그 갈등의 대립현상을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복기의 원주민들과 에스빠냐 군대의 전투들이 우파와 좌파 그러니까 에스빠냐 정복자와 메시까, 잉까의 전투를 그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모든 형태의 정복에 대항한 원주민 저항이 여기에 들어가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것으로 잉까의 뚜빡아마루 1세와 메시까 과우떼목의 저항을 꼽을 수 있겠다.

앞에서 중도라고 이야기한 토착화된 정복자 집단과 에스빠냐 정부의 갈등은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식민지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에스빠냐 세력과 갈등을 초래한 마르띤 꼬르떼스의 반란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정복전쟁시기: 원주민(좌파) ⟸⟹[2] 에스빠냐(우파)

식민지초기: 원주민(좌파) ⟸⟹ 반 에스빠냐 끄리올요 ⟸⟹↕(좌우파의 기준선) 친 에스빠냐 끄리올요 ⟸⟹ 뻬닌술라(우파)

Ⅲ. 반 식민지

식민지시대의 정치적인 큰 맥락을 한마디로 집약하라고 한다면 식민지체제의 공고화라는 말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300여년 간의 식민지기간의 다양성 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특징을 꼽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식민지시대의 종결, 즉 아메리카 각 국가들의 독립은 공고화의 실패라

2) ⟸⟹ 는 상호 적대적이라는 의미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좌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원주민들은 식민지 체제에 반한 크고 작은 저항을 하기는 하였지만 정치, 경제적인 상황에 거스르지 못하고 에스빠냐와 에스빠냐사람의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구조 속에서 맞추어 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상황의 변화라고 한다면 상대적인 숫자의 감소라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은 1. 흑인노예의 유입, 2. 원주민 절대인구 감소, 3. 혼혈화에 따른 상대적인 인구 구성비율의 감소이다.

새롭게 유입되는 흑인노예들이 비기득권층의 제일 말단에 위치하게 됨으로서 세부적인 면에서 다른 인종적인 특색을 가진 비기득권 좌파의 일단이 생겨난다. 또한 원주민들이 정복과정,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인구가 감소하기도 한다. 원주민들의 인구가 애당초 얼마였으며 이후 얼마나 감소하였는지에 대한 통계는 정확치 않으나 절대적인 인구의 감소가 현격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3)]

혼혈이라고 하는 요인은 정치, 경제, 사회 등에 상당히 복잡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진 좌우의 성향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혼혈인들이 중도이거나 중도좌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이 개별적인 현상이 아닌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점이 항상 전제된다. 이 논문은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의 틀을 이해하자는 데에 주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 점은 그렇고, 하여간 혼혈은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가장 최고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빠냐 사람에 비교하여 많은 특권을 누리기 힘들었다. 일단 혼혈인들은 인종적으로 뻬닌술라르가 될 수 없고 끄리올요에 해당하거나 그 아래의 사회적인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개별적인 차이가 점점 많아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신분수준을 원주민 보다는 높고 끄리올요보다는 낮은 곳에 위치시키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 중 일부가 최상층 끄리올요를 구성하였던 점을 간과할 수 는 없다. 특히 시간이 더욱 흐르면서 독립이후로 이들 혼혈인들이 인구 구성의 중요한 부분을 점하면서 점차적으로 기극권의 최사상위에서부터 최하위를 통하는 다양성을 가진 역동적인 인종이 된다.

---

3) Krickeberg 는 정복이전 원주민의 수가 약 45,000,000 이상 이었으며 현재에는 북미 430,000, 중미 6,400,000, 남미 8,700,000 정도로 정복당시와 현재만 보더라도 정복당시의 원주민 수가 현재에 비하여 3배 이상 많았다고 추산한다.(Krickeberg 1974, 21)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생물학적인 인종이 사회신분구성 혹은 우리의 주 논의 대상인 좌우파에 대한 시각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문제이다. 인종의 문제는 식민지 초기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가 이후 점차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엷어졌다. 그렇지만 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전반에 걸쳐 기득권과 비기득권을 나누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은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계층을 다루는 주요한 주장들에서도 잘 나타나서 사회계층을 말함에 있어서 피부색 혹은 인종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된다.(Mendizábal 1975) 따라서 인종적인 특징이 좌우를 가르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될 수 없지만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성격을 이야기 할 때에도 인종적인 특징을 구분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피부의 색깔에 따른 성향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Barceló) 즉 인종의 문제는 좌우를 나누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피부색에 따라 좌우가 나누어지는 특징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종적인 구분에 따른 차별은 더욱 뿌리 깊은 그래서 극복하기 힘든 사회적인 불평등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양한 저항들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반란이라는 말로 결론지어진다. 크고 작은 반란을 통하여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에스빠냐와 에스빠냐 사람들의 후손들이 유지하는 기득권에 대항하여 투쟁하였으나 모두 무의로 돌아간다. 흑인노예들의 반란, 원주민들의 반란, 끌리올요의 반란 등 다양한 계층의 반발이 있었다.

흑인노예 ⟺ 원주민 ⟺ 비기득권 끄리올요 ⇐ ⇳(좌우파의 기준선) ⇒기득권 끄리올요 ⟺ 뻬닌술라르(우파)

Ⅳ. 반 서구열강

1700년대 이후 에스빠냐의 정치, 경제는 급격히 하락해간다. 부르봉왕조의 개혁도 무의로 끝나고 19세기를 맞았다. 결국 나폴레옹의 침공과 더불어 아메리카대륙에서는 독립의 기운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1810년과 1830

년 사이에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하기에 이른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 독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식민지 국가, 정치, 사람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의 독립의 경우에도 일본인들이 그들의 정치와 경제적 주권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이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300년 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식민지화가 이루어지다보니 떠나가야 할 주체가 무엇인지가 분명치 않게 된다. 이미 토착화 된 요소들이 너무도 사회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이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면 에스빠냐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난 정치적인 면에 국한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사회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에스빠냐의 영향이 온전히 돌아간 것이 아니다.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 이 점이 특히 두드러진다. 앞에서 설명한 삐닌술라르가 독립의 결과로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곳에 끄리올요 세력은 그대로 남게 된다. 원주민을 지배하였던 백인들이 토착세력이 되어 이곳에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은 독립이 아니라는 표현 역시 가능하다. 인종적인 표현을 빌자면 에스빠냐에서 태어난 백인과 아메리카대륙에서 태어난 백인의 갈등 결과 에스빠냐에 적을 둔 백인이 패하여 물러난 것이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현상은 독립이 아닐 수 있다. 자신들을 식민지화 시켰던 주체가 온전히 물러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립의 배경과 과정이 사회의 좌우의 대립현상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의 지배와 종속구조는 변하지 않았으며 좌우의 대립이라는 도식으로 본다면 역시 좌우의 구분과 그 구성요소들에 큰 변화가 없게 된다. 아메리카 대륙에 남은 백인들, 즉 끄리올요들은 국가의 지배세력을 이룬다. 그러나 이중에서 보수적인 세력은 에스빠냐와 같은 유럽의 다른 모델을 따라 그들의 절대적인 지도를 받아 국가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유럽의 왕가가 독립이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통치해야한다는 생각까지 한다. 이들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득권층을 이루고 있었다. 반면 다른 끄리올요 그룹은 유럽식의 모델, 즉 국가 발전과 근대화의 방식은 유럽에서 찾되 자신들이 주체적인 세력이 되어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두 그룹으로의 분할은 19세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정쟁의 두 극이 된다.

원주민이 입장에서 본다면 에스빠냐에 이은 또 다른 서양세력의 침략이 19세기 아메리카 제 국가들의 독립과 더불어 발생된 것이라는 평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Manrique 1994, 3)

독립을 한 이후부터 점차 인종적인 특색이 정치적인 성향을 나누는 기준으로 쓰기 어려워 지는 현상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한다. 위에 말한 두개의 중요한 정치적인 그룹은 대부분 백인들이 주도를 하였지만 이 중에는 혼혈인이 상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멕시코의 후아레스의(Benito Juárez) 경우처럼 원주민이 정치적인 대권을 차지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좌우를 나누는 기준으로 친 유럽적이냐 반 유럽적이냐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원주민이나 흑인들의 경우 겨우 노예적인 생활을 면해가는 정도의 수준으로서 아직도 정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기에는 묘연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역사에서 보면 1869년서부터 1877년까지의 기간을 '공화제의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외국세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국가 내에서의 발전을 도모하였던 기간이었다.(Colmenares 1995, 9) 이러한 움직임이 미미하나마 좌파적인 분위기의 제도권 내에서의 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인 주류의 싸움이 이러하였다고 한다면 다른 한편에서 원주민들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세계농업경제 시장에서 각광받는 주요 농산물들이 대단위 농장을 통해서 조달되면서 중남미 제 국가들이 이러한 농업생산의 기지가 되어간다. 특히 사탕수수, 커피, 바나나, 에네껭 등과 같은 작물들이 자본과 토지를 확장해 가는 대지주와 외국계기업간의 협력 하에 경영되고 원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된다. 이로 인한 원주민과 농민들의 저항은 멕시코 혁명과 같은 민중 봉기의 원인을 제공한다.(Ávila 2001, 299)

한편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원주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한다. 각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원주민이기 때문에 이들을 국가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원주민들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다. 즉 원주민들이 정치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배경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치적인 배경의 발생과는 거리가 멀다. 이 당시의 원주민이란 이제 막 서양 사람들과 비슷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정도이다.(Marchetti 1986, 125) 그러다보니 당연히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국민의 한부분이라는 인식은 있었으나 그것이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하여 좌파의 한 부분을 이루기에는 그 힘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다만 이제 막 정치적인 세력으로서 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흑인 ⟸⟹ 원주민 ⟸⟹ 반 유럽 끄리올요와 혼혈인 ⇐ ↕(좌우파의 기준선) ⇒ 친 유럽 혼혈인과 끄리올요

반 유럽과 친 유럽의 정치적인 갈등은 공화파와 왕당파의 형태 등 각 국가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그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심각한 불안정의 원인이 된다는 점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정쟁의 결과 일 년에도 몇 번씩 대통령이 바뀌는 정치적인 극도의 혼란 상태를 맞이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어느 국가가 빨리 극복하고 안정을 찾느냐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칠레와 같은 나라가 비교적 빠른 안정을 찾은 나라중의 하나가 된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식민지 시대의 행정구역보다도 더욱 세분화되어 지금처럼 여러 개의 국가로 나누어지는 원인 역시 이러한 정쟁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Ⅴ. 반 미국

19세기를 세계 헤게모니를 위한 서구 열강들의 투쟁의 시대라고 한다면 20세기는 그러한 투쟁의 결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진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대항해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포루투갈과 아메리카 대륙 침략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쥐었던 에스빠냐 그리고 영국을 거쳐 세계의 패권이 아메리카 대륙의 신흥국가인 미국에게 넘어오게 된다.

아메리카 대륙의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은 항상 모든 패권을 가진 나라들의 제 일의 침탈대상지였다. 가장 중요한 이권이 있는 곳이었다. 풍부한 자연환경과 천연자원, 농업의 대상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곳 등 아메리카 대륙에는 자국의 이익을 증가시켜 세계의 패권국가로서 자리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값진 땅에 많은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비기득권 세력들은 항상 세계의 헤게모니를 쥔 국가들과 투쟁을 버리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헤게모니를 쥐게 되었다는 사실은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하층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전과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 백인을 중심으로 한 거대국가가 탄생을 하고 그 국가가 세계의 헤게모니를 쥐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징조일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부상은 농민과 노동자의 생활의 질 하락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더욱더 강화된 인접국가인 미국의 간섭과 탄압이 20세기를 거쳐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에게 미치게 된다.

20세기의 라틴아메리카 좌파와 우파의 구분은 이러한 점에서 반미냐 친미냐 하는 점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기득권층은 미국과의 결탁을 통해서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한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각 국가 기득권층의 유지와 미국의 패권강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멕시코의 제도권정치 속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혁명정신과 좌파적인 대안의 대명사로 불리는 라자로 까르데나스(Lázaro Cárdenas)의 정책 중에 미국이 소유하고 있던 석유와 철도의 국영화가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받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Torre 2001, 500~502)

20세기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볼 때는 사회주의 운동의 세계적인 실험, 라틴아메리카적인 면에서 볼 때는 쿠바 혁명의 영향 등으로 무장투쟁을 통한 민중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중요한 맥락을 이루면서 좌파의 방향이 과격한 양상을 띠고 나타난다. 여기에 급진적인 학생운동이 그 이론적인 논의와 행동에서의 다양한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Careaga 1973, 5)

앞의 장에서 말한바와 같이 인종적인 측면에서는 꾸준히 혼혈화의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백인들이 주축이 되어 기득권을 이끌어간다. 즉 인종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백인들은 한 번도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일부 혼혈인들이 가세하여 백인들의 기득권의 일부를 공유하는 형태가 된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은 혼혈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여 백인과의 대립의 양상을 보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시대의 흐름에 영합하는 형태로 그들의 기득권을 도모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원주민과 흑인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당연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평균과 맥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사회의 밑바닥 층을 꾸준히 유지해 온다.

흑인 ⟺ 원주민 ⟺ 반미 끄리올요와 혼혈인 ⇐ ⇳(좌우파의 기준선) ⇒ 친미 끄리올요와 혼혈인

Ⅵ. 반 신자유주의

라틴아메리카의 좌파는 앞의 장에서 본 것과 같은 반미의 성격을 오늘날까지도 이어가고 있다. 넓은 시각에서 보면 좌파는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점에서 세계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나라에 외교적인 면에서 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결국 라틴아메리카의 좌파가 오늘날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미국과 지리적인 인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많은 폐해를 겪어야 했던 중남미 국가들의 좌파가 반미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기에서 굳이 새롭게 반 신자유주의 - 반 외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은 그러한 면에서 적절치 못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은 시대적인 구분을 하는 다른 장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장이 아니라 중남미의 반미 양상의 기본적인 양상에서 오늘날의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해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앞에 장과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2000년 이후 라틴아메리카 정치의 가장 큰 화두인 좌파휘몰이 현상은 반 신자유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점에 있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중남미의 어떤 좌파국가도 세계경제체제의 흐름을 반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신자유주의가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경제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미국이나 기타 열강들의 제국주의적인 경제침탈을 합리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남미의 좌파에게 반 신자유주의라는 규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좌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자급자족적인 경제를 통해 경제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경제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만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전폭전인 사회주의적 경제 모델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좌파정부는 싫건 좋건 상당부분 현재의 시장경제 체제에 개방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중남미의 좌파라고 하는 다양한 나라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특성이기도 하다.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와 같은 극좌파적인 성격을 가진 나라들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건전한 시장경제 체제와 자유주의 무역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성격은 국가내부의 좌우파 형성에서 이전과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전의 친미 끄리올요 그룹의 경제적인 기득권이 박탈되지 않고 유보되게 된다. 이번의 시도에서는 흑인과 원주민으로 대표되는 하층민들이 좌파정부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서 자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층민들의 끊임없는 저항의 하나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다만 이번에는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과 내각을 통해 반미 혹은 반 제국주의적인 국가발전 모델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라틴아메리카에 들어오기 시작한 1980년대 이전의 저항 방식인 무력투쟁에서 무혈 정치투쟁으로 옮아간 것이다.

흑인 ⟺ 원주민 ⟺ 반 신자유주의 끄리올요와 혼혈인 ⇐ ⇳(좌우파의 기준선) ⇒ 친 신자유주 끄리올요와 혼혈인

Ⅶ. 나가는 글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1492년부터 오늘날까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다양한 면에서 기득권을 가진 자를 위한 수탈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기득권에 대한 반대 세력일 수밖에 없었다. 이를 우리는 다른 형태의 표현을 빌자면 좌파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주민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다양한 외부세력과 그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되었던 기득권에 대항하였다. 그래서 기득권을 잡은 우파의 반대편에 놓인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좌파의 범주를 벗어나 본적이 없고 이것은 좌파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형성한다. 이것을 라틴아메리카 역사속에서 도식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좌파		우파	
정복전쟁시기	원주민		에스빠냐, 포르투갈인	
식민지초기	원주민	반 에스빠냐, 포르투갈 끄리올요	친 에스빠냐 포르투갈 끄리올요	뻬닌술라르
식민지시대	원주민	비기득권 끄리올요	기득권 끄리올요	뻬닌술라르
19세기 혼란기	원주민	반 유럽 혼혈인과 끄리올요	친 유럽 혼혈인과 끄리올요	
20세기	원주민	반미 혼혈인과 끄리올요	친미 혼혈인과 끄리올요	
21세기	원주민	반 신자유주의 혼혈인과 끄리올요	친 신자유주의 혼혈인과 끄리올요	

이제까지의 특징들에서 본 바와 같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흑인들과 원주민이 가장 핍박받은 사회적인 계층이 되었다. 오늘날 좌파가 원주민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혹은 이들을 이용하면서 비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온전히 희생을 강요당하며 기득권을 단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원주민들은 오늘 날 라틴아메리카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인 극단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격차의 가장 아랫단을 형성해 왔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좌파라고 표현할 수 있다. 좌파를 다수의 가지지 못한 민중을 위한 정치라고 표현한다면 원주민은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원조를 이루고 있으며 한 번도 그 좌파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본적이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역사가 그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한 번도 권력이나 경제적인 부를 누린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좌파의 원조이자 좌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좌파의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는 중요한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편으로 얼마나 친 원주민적인 요소를 실질적으로 보이느냐 하는 점이 실질적인 면에서 좌파의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 논문은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속에서 좌파와 우파를 인종적인 측변에서 어떻게 도식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이는

세부적인 논란을 시도하기 보다는 도식적인 이해의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시도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러한 도식의 적용이 얼마나 가능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현실과 어긋나서 적용불가능한가의 논의가 다음 차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Ávila Espinosa, Felipe Arturo(2001), Los orígenes del zapatismo,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UNAM

Barceló, Raquel, et. al(1995), Diversidad Étnica y Conflicto en América Latina, México, Plaza y Valdes, UNAM

Colmenares, Ismael(1995), Cien Años de Lucha de Clases en México 1876 ~ 1976, México, Ediciones Quinto Sol

Careaga, Gabriel(1973), Los Jóvenes Radicales, México, Dirección General de Difusión Cultural, DESLINDE, Cuaderno de Cultura Política Universitaria 42, UNAM

Hamnett, Brian R(2000), "VII Poder central y realidad provincial: una relación fundamental de origen colonial" en Historia de América Latina, Volumen I, La Época colonial, México, Centro Coordinador y Difusor de Estudios Latinoamericanos, UNAM

Krickeberg, Walter(1974), Etnología de América,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Manrique Castañeda, Leonardo(1994), La Población Indígena Mexicana, México,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Geografía e Informática, Instituto Nacional de Antropología e Historia, UNAM

Marchetti, Giovanni(1986), Cultura Indígena e Integración Nacional, México, Universidad Veracruzana

Mendizábal, Miguel Othón de, et al(1975), Las Clases Sociales en México, México, Editorial Nuestro Tiempo,

Torre Villar, Ernesto de la, Navarro Anda, Ramiro(2001), Historia de

México, México, Mcgrawhill
Zoraida Vázquez, Josefina(1991), La imagen del indio en el español del siglo XVI, México, Universidad Veracruzana

논문투고일자: 2007년 10월 12일
심사완료일자: 2007년 12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12월 10일

송영복(Song, Young-Bok)
경희대학교 스페인어학과
E-mail: songyb@khu.ac.kr